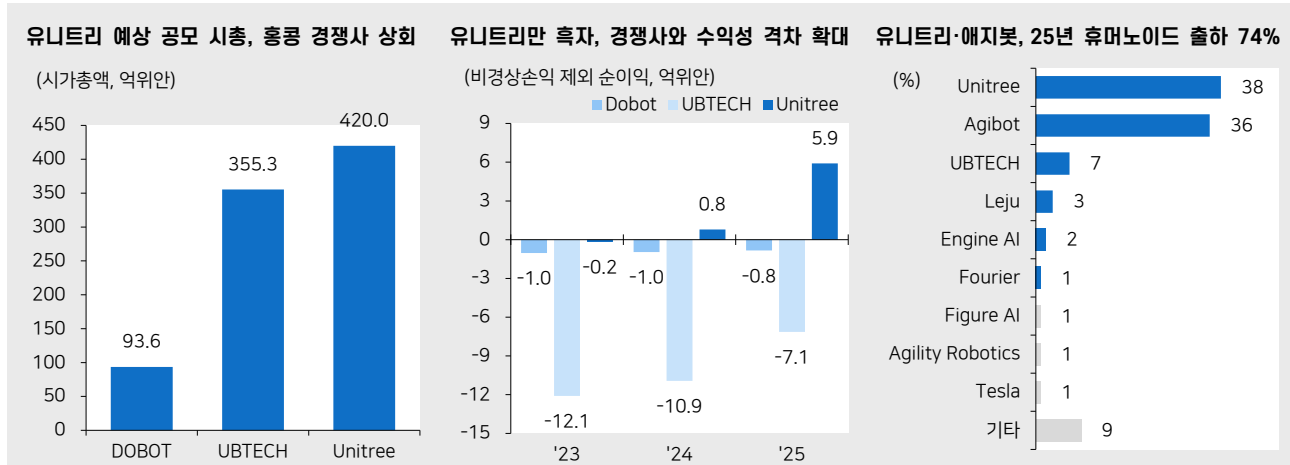


오늘의 차트

최선휘 연구위원

유니트리 IPO 점검



자료: Wind, Omdia, Unitre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유니트리는 7월 30일 과창판 상장을 위한 공모 일정을 공개했다. 8월 5일 수요일 예측과 10일 청약을 진행하며, 시장에서는 19일 전후 상장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목표 조달금액은 약 42억 위안이며, 신주 발행 규모 4,044.6만 주(상장 후 총주식수의 10%)를 감안한 예상 공모 시가총액은 약 420억 위안(약 8조 원)에 달한다.

예상 공모가가 확정될 경우 유니트리는 상장된 중국 로봇 기업 가운데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설 전망이다. 이는 동종업체 대비 차별화된 수익성 때문이다. 홍콩 상장사인 유비테크와 도봇이 연간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유니트리는 2024년 연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직접적인 밸류에이션 프록시가 부재한 상황에서 유니트리의 공모가 및 상장 후 주가 흐름은 새로운 기준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다만 중국 휴머노이드 시장의 경쟁 강도는 높아질 전망이다. '25년 휴머노이드 출하량 2위 업체 AgiBot도 7월 24일 홍콩증시 상장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 유니트리가 로봇 본체와 핵심 부품 등 하드웨어 경쟁력을 축적해 왔다면, AgiBot은 AI 모델과 소프트웨어 역량을 병행해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25년 중순 투자 라운드에서 Agibot 기업가치는 약 150억 위안으로 평가돼 유니트리의 127억 위안을 상회하기도 했다.

투자 관점에서 실질적인 수혜는 중국 로봇 공급망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유니트리와 AgiBot의 연이은 상장은 산업 전반의 자본 유입을 확대하고, 양산 투자 및 생산능력 증설을 촉진할 수 있다. 특히 유니트리의 공급망 국산화율이 약 8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액추에이터, 감속기, 센서 등 핵심 부품 업체를 포함한 중국 로봇 밸류체인 전반에 낙수효과가 기대된다.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
